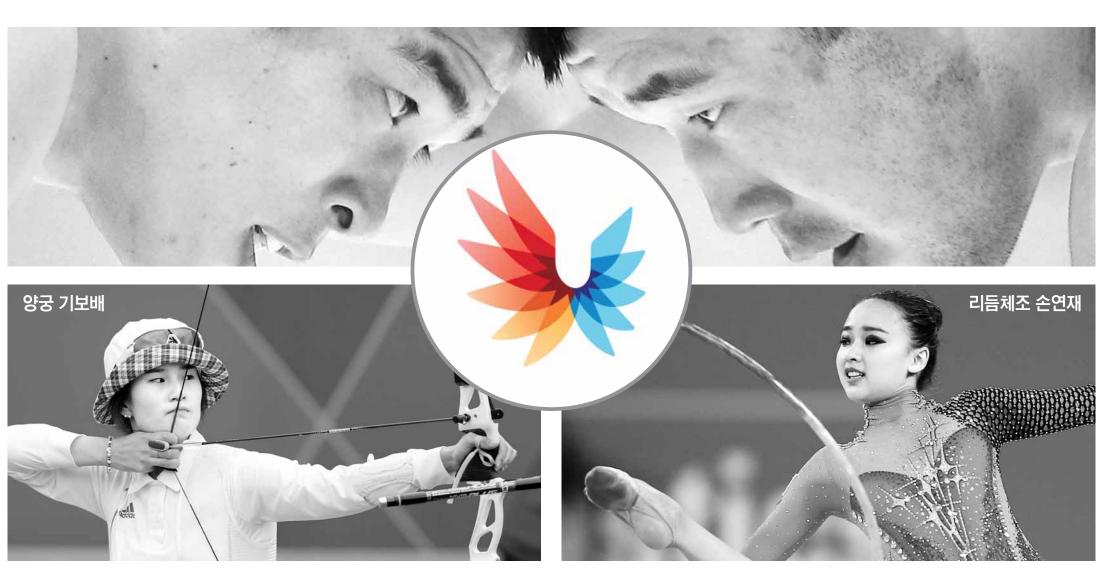
## 광주 U대회 D-74

## 미리보는 리우 올림픽…광주에서 펼쳐지는 샛별들의 전쟁



제28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 대회) 대회 개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U 대회(7월3~14일)에는 역대 최대인 170여개국 2만 여명의 선수와 임원, 보도진이 참가한다.

광주 U대회 조직위는 열악한 광주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예산절감을 통한 '에코버시아드' 대회 운영을 목표로 예산 절감 등 통한 내실있는 대회개최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회 최대 흥행카드로 꼽히는 남북단일팀 구성은 무산됐지만 판문점 성화봉송 프로젝트와 북한 응원 단 참가 등을 현실화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북한 대표단은 지난 11~15일까지 광주에서 열린 대표단장 사전 회의에 참석해 판문점 성화봉송등에 대한 질문에 웃음으로 화답하는 등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영장·양궁장·다목적체육관 신설=조직위는 선수단의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둔 '선수중심의대회'를 목표로 완벽한 경기장 시설 확보 등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대회기간 동안 선수들이 훈련하고, 경쟁을 펼칠 시설만 총 70곳(광주 45개, 전남·전법 37개)

광주U대회는 '에코버시아드'(Ecoversiade)를 표방하며 국제기준에 달하는 수영장, 양궁장, 다목 적체육관 등 3개 경기장을 제외한 67개의 시설을 개·보수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신규 건립을 최대한 줄여 환경을 보존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지속가능한 방식의 경제효율성을 높이 겠다는 것이다.

## 저비용 고효율 '에코버시아드' 대회로 치러 21개 종목·272개 금메달 놓고 뜨거운 승부

특히 광주U대회 선수촌은 국제대회 최초로 도심 아파트를 재건축(화정주공 아파트)해 선수촌, ITO 빌리지 등으로 활용 후 민간에 인도하는 방식을 도 입했다. 이곳에는 총 1만2000여명의 선수단이 머물 게 될 예정이며, 22개동 2445세대가 선수촌 및 ITO (국제기술임원) 숙소로 활용된다. 지난 2012년 9월 착공돼 오는 6월 22일 언론에 사전공개되며 같은 달 26일 개촌식을 갖는다. 선수단은 개촌식 다음날인 27일 공식 입촌한다.

◇남자야구 한·일전 등 빅게임 즐비=광주U대 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21개 종목 272개 금메달을 놓고 뜨거운 12일을 보내게 된다.

단체종목 대진표는 이미 나왔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농구(남·여), 축구(남·여), 배구(남·여), 수구(남), 핸드볼(남·여), 야구(남) 등 모든 단체종목에 출전한다. 북한은 단체경기 중 여자축구와 여자핸드볼에 출전한다. 단체전 중 가장 주목되는 경기는 남자야구와 여자핸드볼의 한-일 전이다. 남자야구에서 한국은 일본, 중국, 프랑스와 A조를 이뤘다. 일본과의 자존심 대결이 관심사지만 이변이 없는한 나란히 본선 진출이 예상된다.

여자핸드볼에서는 또 한 번의 한일전이 펼쳐진

다. A조에 속한 한국은 일본, 중국, 우크라이나와 같은 조에 편성됐다. 한국은 객관적인 전력이 세계 최강인 만큼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핸드볼은 U대회 사상 처음으로 치러진다.

여자축구는 C조가 볼거리다. 브라질, 북한, 중국이 한 조로 묶이면서 죽음의 조가 됐다. A조인 한국은 강팀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한결 여유롭다. 여자축구에서 남북 대결을 기대하려면 북한이 C조에서 2위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한다. 남자축구는 D조에 강팀이 몰려있어 A조에 편성된 한국은 상대적으로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대회는 개막 하루 전인 7월 2일부터 수구와 축구를 시작으로 12일간 광주, 전남, 전북의 경기장과 훈련장을 오가며 570개 경기가 펼쳐지고, 수구 결승전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염주실내수영장에서 열리는 수구 경기는 대회 마지막 날까지 13일간 연일 치러지는 유일한 종목이다. 21개 종목 중가장 많은 50개 금메달의 주인공이 탄생할 육상경기는 광주U대회 주경기장(월드컵 경기장)에서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남부대국제수영장에서는 다이빙을 포함한 경영에서 총 42개 수영 종목 금메달을 두고 열띤 경쟁을 벌이게 된다.

이 밖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우세를 보이는 사격과 태권도에 각각 34개와 23개의 금메달이 걸 려있어 효자종목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계 샛별들 대거 참여=광주 U대회가 '2016 리우올림픽'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마지막 종 합대회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이 대거 몰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154명의 유니버 시아드 메달리스트가 전체 26종목 중 21종목에서 총 174개(금메달 75, 은메달 56, 동메달 70)의 메달 을 획득하는 등 U대회는 올림픽의 성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종합대회이기 때문이다.

국내 선수들 중에선 광주U대회 홍보대사이기도 한 손연재·양학선·기보배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인 이용대·김성연· 이특영도 함께 한다.

세계적으로는 NBA 선수의 대부분을 배출하는 미국 대학농구 리그팀 중 캔자스대학 남자 농구팀 이 참가한다.

이 밖에도 2014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과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인 북한의 여자대표 체조선수 인 홍은정을 비롯한 런던올림픽 육상 높이뛰기 종 목에서 금메달을 딴 브리제타 바렛(미국), 창던지기 금메달 바르보라 슈포타코바(체코), 수영 평영 및 릴레이 금메달 레베카 소니(미국), 접영, 자유형, 릴 레이 금메달 다나볼머(미국) 등 세계 최고의 기량을 지닌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첫 국제대회 성공개최 자신있다"

김윤석 사무총장

김윤석 2015광 주하계유니버시 아드(광주U대회) 사무총장은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온 대회 준비에 여념 이 없는 모습이다. 김 사무총장은

"광주에서 열리 는 첫 국제 대회



로 국제도시 광주 의 명성을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면서 대회성공 개최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대회 준비는 잘되고 있는지.

▲이미 실전 체제로 전환했고, 막바지 점검이 한창이다. 그동안의 노력 덕분에 최근 열린 FISU 감독위원회(CSU) 점검과 대표단장 사전회의 참가자들이 대회 준비 상황에 대해 만족 감을 드러냈다.

현재 조직위는 대회성공 키워드인 '소박한 대회', '선수 중심의 대회', '경제효과 중심의 대 회', '시민이 함께하는 민주·인권·평화의 대 회', '안전한 대회'를 목표로 대회 준비에 최선 을 다하고 있다.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대회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와 전남·북, 충북 등 대회가 열리는 지역민은 물론모든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 대회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국민의 관심이 없다면 실패한 대회가 된다. 대회의 성공 여부는 결국 국민적 관심과 참여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모집중인 광주U대회 시민서포터즈에 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한다. 또한 시 민 모두가 홍보대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국내외 손님들에게 남도의 정을 넉넉히 나눠주셨으면 한다.

-대회흥행을 위한 판문점 성화봉송과 북한 응원단 참가 가능성은.

▲북한은 지난 3월 광주U대회 공식참가신청 서를 FISU를 통해서 접수한 이후 최근 광주에 서 열린 대표단장 사전회의에도 참가했다. 대 북 관계는 국내외 정세와도 맞물린 만큼 장담 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특히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인 광주에서 정 치색이 배제된 전 세계 대학생의 대축제가 열 린다는 점에서 북한의 참여 폭이 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안전 대책은. ▲이미 각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하고 단계별 안전점검을 진행중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